

질그릇교회 CLAYJARS

1314 N Angelina Dr. Placentia CA 92870

www.clayjars.org

황성만 목사 Rev. Sungman Hwang

November 15, 2026 **제24권 46호**

2026년 교회 표어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요13:34~35, 요일4:11)

Christians who Sharing Love

: Embracing All, Serving All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I am giving you a new command. You must love each other, just as I have loved you. If you love each other, everyon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요한복음(John) 13:34~35]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From the beginning you were told that we must love each other.

[요한일서(John 1) 3:11]

"But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to show that this all-surpassing power is from God and not from us." (2 Corinthians 4:7)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성령강림절 후 스물다섯번째 주일 | **November 15, 2026**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43:3-4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고백의 기도 Prayer of Confession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기도 Prayer		**윤치선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유은복 권사,** 스바냐(Zephaniah) 1:7, 12-18 **교독-다함께,** 데살로니가전서(Thessalonians) 5:1-11
복음서봉독 The Gospel		마태복음(Matthew) 25:14-30, **설교자**
오늘의 말씀 Sermon		"묻어 둘 수 없는 달란트" The Talent That Cannot Be Buried - **황성만 목사**
봉헌 Offering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광고 Announcement		
결단찬양 Responsive Song	*	나 맡은 본분은 (372) A Change to Keep I Have
축도 Benediction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Please stand.**

-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 다음주 기도 | 황성만 목사

| 다음주 본문 | 봉독자 **윤치선 집사** 시편(Psalm) 95:1-7a
에베소서(Ephesians) 1:15-23
마태복음(Matthew) 25:31-46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시 43:3-4)

4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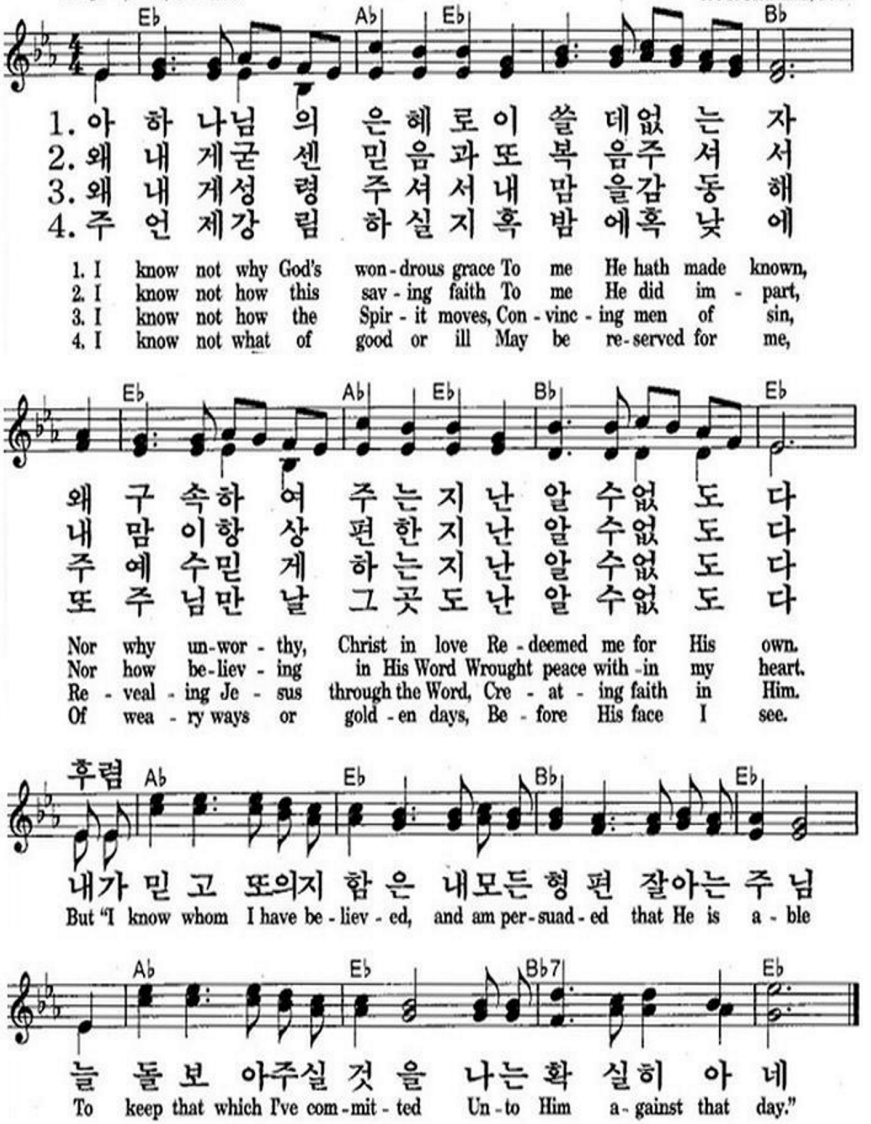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D. W. Whittle, 1883

조금 빠르게 ♩ = 100

(딤후 1 : 12)

EL NATHAN: 8.6.8.6.REF.
J. McGranahan, 1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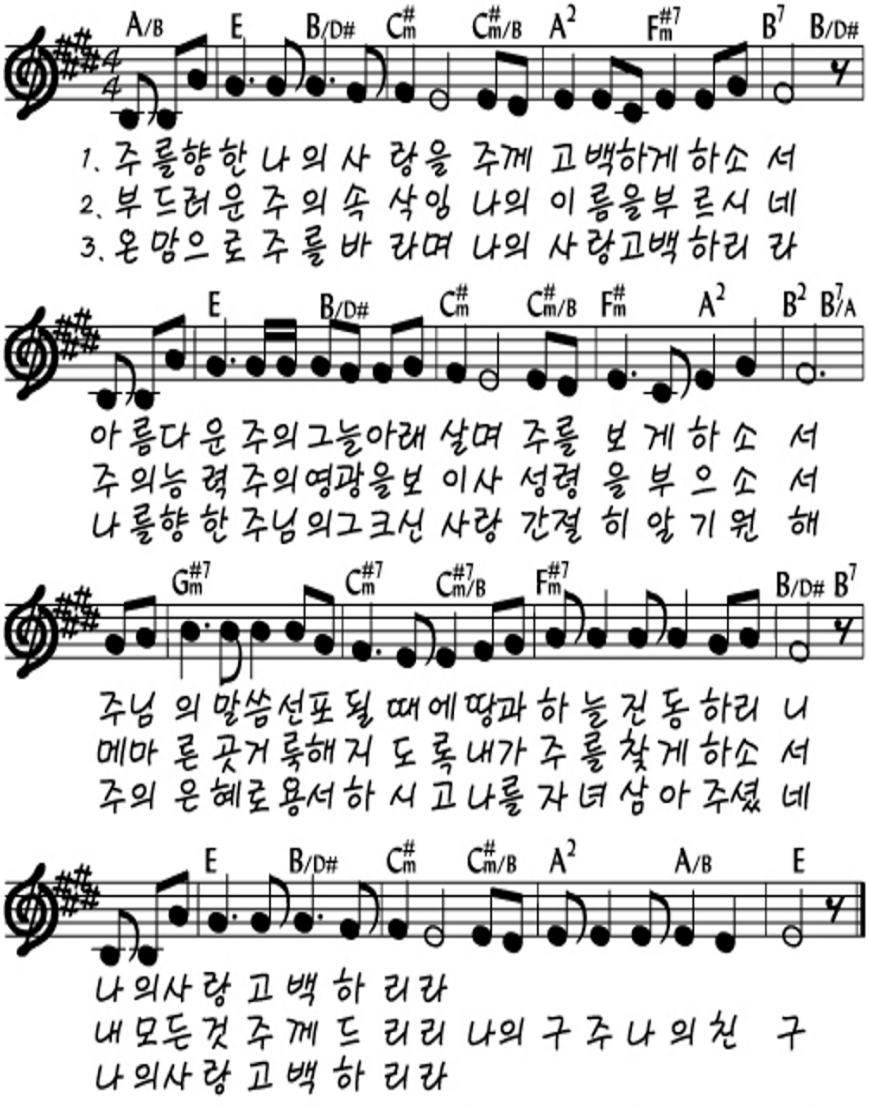


은혜와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Geoff Bull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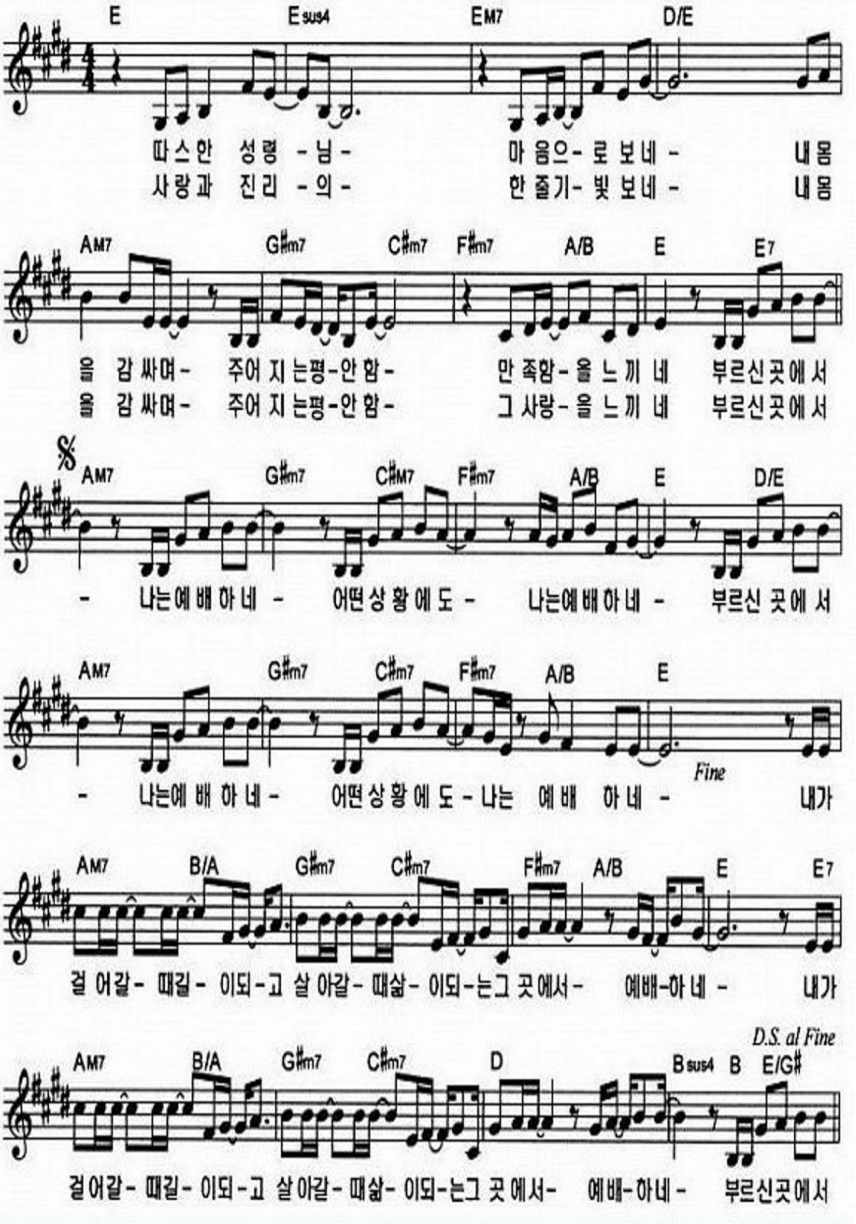
올네이션스 역



Copyright (C) 1994 Word Music Inc./Maranathal Praise In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

부르신 곳에서

Words & Music by
김준영 & 송은경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begotten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스바냐(Zephaniah) 1:7, 12-18, 새번역, ESV]

7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제물을 잡아 놓으시고서, 제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12 그 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13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헐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14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15 그 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16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17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18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 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7 Be silent before the Lord GOD! For the day of the LORD is near; the LORD has prepared a sacrifice and consecrated his guests.

12 At that time I will search Jerusalem with lamps, and I will punish the men who are complacent, those who say in their hearts, 'The LORD will not do good, nor will he do ill.' 13 Their goods shall be plundered, and their houses laid waste. Though they build houses, they shall not inhabit them; though they plant vineyards, they shall not drink wine from them." 14 The great day of the LORD is near, near and hastening fast; the sound of the day of the LORD is bitter; the mighty man cries aloud there. 15 A day of wrath is that day, a day of distress and anguish, a day of ruin and devastation, a day of darkness and gloom, a day of clouds and thick darkness, 16 a day of trumpet blast and battle cry against the fortified cities and against the lofty battlements. 17 I will bring distress on mankind, so that they shall walk like the blind, because they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their blood shall be poured out like dust, and their flesh like dung. 18 Neither their silver nor their gold shall be able to deliver them on the day of the wrath of the LORD. In the fire of his jealousy, all the earth shall be consumed; for a full and sudden end he will make of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데살로니가전서(Thessalonians) 5:1-11, 새번역, ESV]

1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2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 때에, 아기를 밴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4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5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7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8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9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10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1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1 Now concerning the times and the seasons, brothers, you have
no need to have anything written to you. 2 For you yourselves are
fully aware tha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in the
night. 3 While people are saying, "There is peace and security,"
then sudden destruction will come upon them as labor pains come
upon a pregnant woman, and they will not escape. 4 But you are
not in darkness, brothers, for that day to surprise you like a thief. 5
For you are all children of light, children of the day. We are not of
the night or of the darkness. 6 So then let us not sleep, as others
do, but let us keep awake and be sober. 7 For those who sleep,
sleep at night, and those who get drunk, are drunk at night. 8 But
since we belong to the day, let us be sober, having put on the
breastplate of faith and love, and for a helmet the hope of
salvation. 9 For God has not destined us for wrath, but to obtain
salvation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10 who died for us so that
whether we are awake or asleep we might live with him. 11
Therefore encourage one another and build one another up, just
as you are doing.

[마태복음(Matthew) 25:14-30, 새번역, ESV]

14 "또 하늘 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15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16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17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18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19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20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2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두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3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4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25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26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27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29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30 이 쓸모 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Matthew) 25:14-30, 새번역, ESV]

14 “For it will be like a man going on a journey, who called his servants
and entrusted to them his property. 15 To one he gave five talents, to
another two, to another one, to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hen he
went away. 16 He who had received the five talents went at once and
traded with them, and he made five talents more. 17 So also he who had
the two talents made two talents more. 18 But he who had received the
one talent went and dug in the ground and hid his master’s money. 19
Now after a long time the master of those servants came and settled
accounts with them. 20 And he who had received the five talents came
forward, bringing five talents more, saying, ‘Master, you delivered to me
five talents; here, I have made five talents more.’ 21 His master said to
him,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over a
little; I will set you over much.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22 And
he also who had the two talents came forward, saying, ‘Master, you
delivered to me two talents; here, I have made two talents more.’ 23 His
master said to him,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over a little; I will set you over much.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24 He also who had received the one talent came forward,
saying, ‘Master, I knew you to be a hard man, reaping where you did not
sow, and gathering where you scattered no seed, 25 so I was afraid, and I
went and hid your talent in the ground. Here, you have what is yours.’ 26
But his master answered him, ‘You wicked and slothful servant! You knew
that I reap where I have not sown and gather where I scattered no seed?
27 Then you ought to have invested my money with the bankers, and at
my coming I should have received what was my own with interest. 28 So
take the talent from him and give it to him who has the ten talents. 29
For to everyone who has will more be given, and he will have an
abundance. But from the one who has not,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away. 30 And cast the worthless servant into the outer darkness. In
that plac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이번주 작품]



작품명: 환전상 (The Money Changer)

다른 이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The Parable of the Rich Fool)

작가: 렘브란트 하르먼스 판 레인 (Rembrandt Harmensz. van Rijn, 1606-1669)

제작: 1627 년, 참나무 판에 유채, 31.9 x 42.5cm

소장: 베를린 회화관 (Gemäldegalerie, Staatliche Museen zu Berlin)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embrandt_-_The_Parable_of_the_Rich_Fool.jpg

감상 포인트

스물한 살의 렘브란트가 고향 레이던에서 그린 작은 그림입니다. 어두운 방 안, 장부와 문서와 돈자루가 어지럽게 쌓인 책상 앞에 한 늙은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촛불 하나를 가까이 두고, 손에 쥔 동전을 그 불빛에 비추어 들여다봅니다. 방 안의 빛은 오직 그 동전과 그의 얼굴에만 머물고, 나머지는 모두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는 "RH. 1627"이라는 화가의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그린 것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미술관은 「환전상」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노인의 모습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그는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등불은 오직 자기 손안의 것을 확인하는 데에만 쓰입니다. 빛은 있으나 흐르지 않고, 방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습 1:12)고 말씀하신다고 전합니다. 사람은 등불을 들어 제 동전을 들여다보지만, 하나님은 등불을 켜 들고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심하지도 가혹하지도 않으신 그분이, 지시도 담보도 없이 먼저 맡기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그림 앞에 서면, 두려움으로 땅에 묻어 두었던 손을 펴게 하시는 그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묻어 둘 수 없는 달란트"(마 25:1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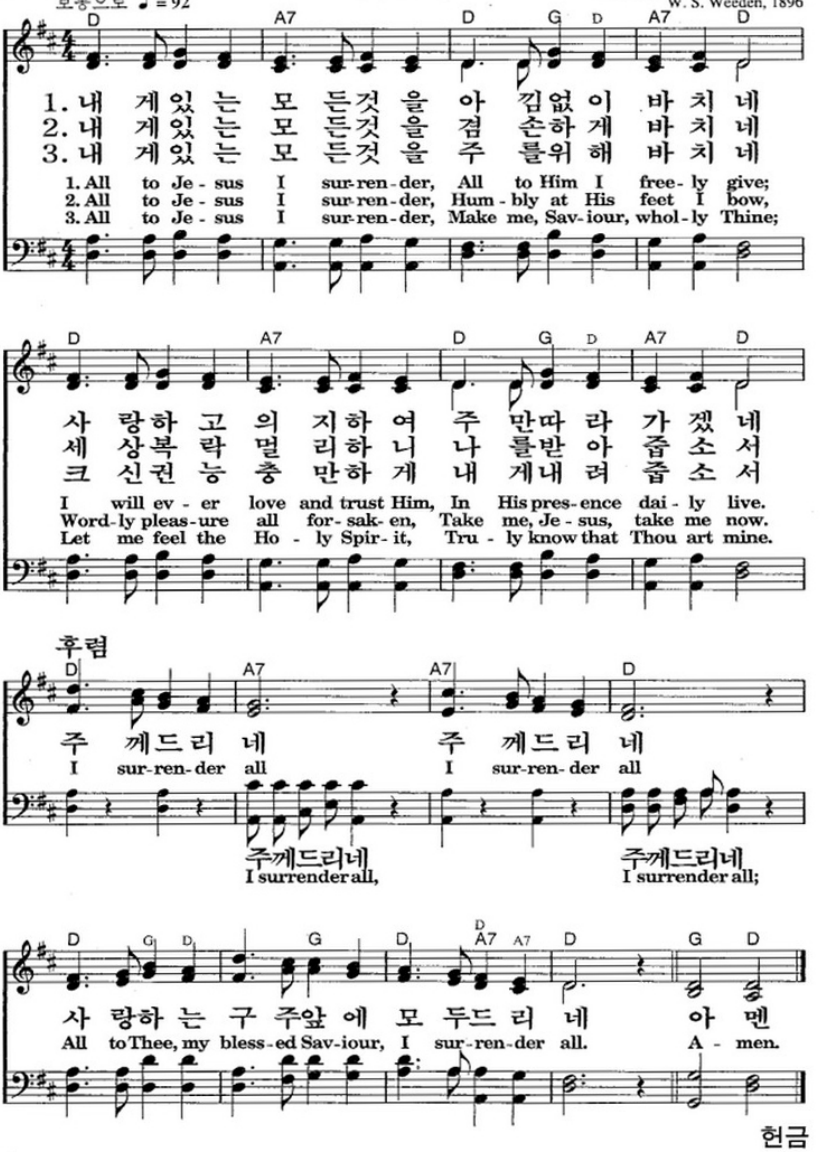
내게 있는 모든 것을 71

All to Jesus I Surrender

(눅 21 : 4)

J. W. Van De Venter, 1896
보통으로 ♩ = 92

SURRENDER: 8.7.8.7.REF.
W. S. Weeden, 1896



헌금

나 맡은 본분은 372

봉사와 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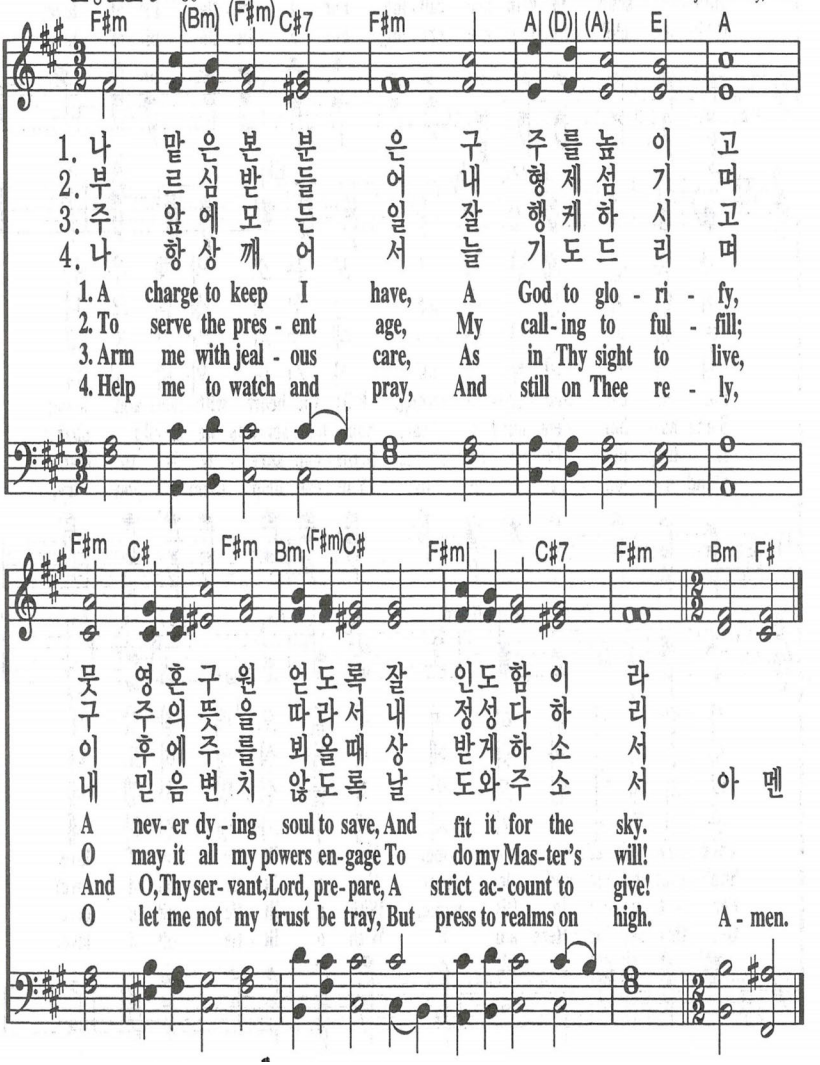
C. Wesley, 1762

A Charge to Keep I Have

(딤후 4 : 5)

WIRKWORTH: 6.6.8.6.
J. Chetham's A Book of Psalmody, 1718

보통으로 ♩ = 80



[소그룹 설교 나눔 질문]

1. 지게미 위의 사람들

"그 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 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습 1:12) 스바냐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내 삶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무심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는 삶이 요란하게 무너지지 않고, 옮겨 담기지 않은 포도주처럼 조용히 고여 굳어 갑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되는 내 신앙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내 삶에는 별로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 내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가라앉아 있었는지 돌아본다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2. 굳은 분이라 알고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마 25:24-25) 세 번째 종은 한 푼도 훔치지 않았고 한 푼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극이 핑계에 있지 않고, 그가 마음에 그려 둔 굳은 주인의 얼굴을 진심으로 믿은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언젠가 내게서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실 것 같아 마음이 움츠러들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 두려움은 내 삶의 어떤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돌아본다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3. 평안하다, 안전하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 때에, 아기를 밴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살전 5:3) 무심한 하나님과 가혹한 하나님이라는 정반대의 두 얼굴이 결국 같은 자리, 곧 가장 안전한 자리에 멈추어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잃지 않으려 애써 온 세월이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먼저 고백하면서, 그 지키는 방식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까지 들어올 때 무엇이 고이게 되는지를 고민합니다.

잃지 않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써 온 내 삶의 세월을 돌아볼 때, 그 지킴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까지 들어와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며 붙들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떠오르십니까?

4. 등불을 켜 드신 하나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 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습 1:18) 렘브란트의「환전상」속 노인은 촛불을 들어 제 손안의 동전을 비추어 보지만, 하나님은 등불을 켜 들고 사람을 찾으십니다. 스바냐의 진노가 하나님의 질투이며, 그 진노가 무겁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요즘 나의 마음의 불빛은 주로 무엇을 비추어 보고 있습니까? 등불을 켜 들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은 두려움입니까, 안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5. 주인과 함께 누리는 기쁨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마 25:21) 주인은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과 두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두 종을 가른 것이 손에 쥔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라 그 달란트 너머로 본 주인의 얼굴이었으며, 그들이 길을 나선 그날부터 이미 주인의 기쁨 안에 있었습니다.

내 손에 맡겨진 것들을 떠올릴 때, 그것이 두려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과 나를 믿어 주신 표로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각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며 나도 함께 기뻤던 순간을 기억한다면,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6. 바깥 어두운 데, 그리고 먼저 걸어가신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살전 5:9) 세 번째 종이 평생 믿어 온 하나님의 얼굴이 마침내 그의 심판이 되었다는 결말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그 비유 바로 뒤에 인자가 넘겨지는 이야기를 놓았음을 보며, 그 바깥 어두운 자리로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던 어둠의 자리에서, 그곳에 주님께서 먼저 와 계셨음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먼저 걸어가신 길"이라는 말씀은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시간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7. 낮의 자녀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살전 5:11) 바울은 "깨어 있으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달란트가 흐르는 자리가 멀리 있는 큰 무대가 아니라 지금 서로의 곁이며, 땅을 파던 손을 펴게 하시는 분은 먼저 맡기시고 먼저 찾으시고 먼저 어둠 속으로 걸어가신 그분입니다.

이번 주간, 내가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 두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울의 말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이미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우고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이며 그 사람은 누구의 얼굴로 떠오르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하루 한 번 머물러 보기

하루 중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 천천히 손바닥을 펴 보십시오. 그 빈손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맡겨 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조용히 돌아보고,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할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지는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맡기시고 먼저 어둠 속으로 걸어가신 그분께서 우리의 움켜쥔 손을 펴 주실 것이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받은 은혜가 서로의 곁으로 흘러가는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말씀구절 Bible Verse

이번주 본문 중에서 – 스바냐(Zephaniah) 1:18

18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 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18 Neither their silver nor their gold shall be able to deliver them on the day of the wrath of the LORD. In the fire of his jealousy, all the earth shall be consumed; for a full and sudden end he will make of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데살로니가전서(Thessalonians) 5:11

11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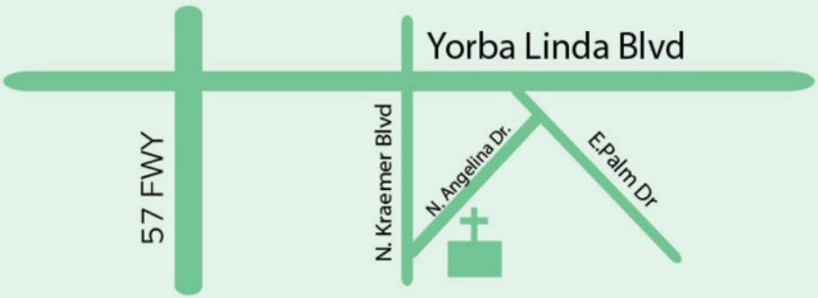
11 Therefore encourage one another and build one another up, just as you are doing.

마태복음(Matthew) 25:14

14 "또 하늘 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14 "For it will be like a man going on a journey, who called his servants and entrusted to them his property.

찾 아 오 시 는 길



교회소식

1. 주일 예배는 오후 1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오전 8시에 Zoom(897 3213 9944, Passcode 9191)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2. 주일 예배 후 교제실에서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주는 식사 교제 후 [말씀의 여정] 시간으로 소그룹 나눔 질문지를 통하여 설교의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3. 후원선교사: 권홍량(차드), 김성환(태국), 김용진(말라위)

4. 기도 제목: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세상을 다스리시오니,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재능으로 이 땅에서 성도의 책임을 다하여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소서.

5. 추수감사주일: 다음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6. 섬김

	11 월 15 일	11 월 22 일	11 월 29 일	12 월 6 일
기도	윤치선 집사	황성만 목사	정해철 목사	윤치선 목사
성경봉독	유은복 권사	윤치선 집사	정용순 집사	김미정 집사
식사	김형귀	교회	정용순	황세나

예배 및 모임안내

예 배 구 분		장 소	시 간
주일예배	**1부 온라인**	**Zoom**	**주일 오전 8시**
	장년부	**본 당**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교육관	준비중
	Youth	**교육관**	**주일 오후 1시**
	대학,청년부	**교육관**	**주일 오후 1시**
모 임	**말씀의 여정**	**친교실**	**1, 3째주 주일 오후 3시**
	목요 북클럽	**사무실**	**매주 목요일 오전 9:30**
	찬양모임	**친교실**	**4째주 주일 오후 3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7)